

뮤직플랫폼

민주길

오월을 듣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교정에는 5·18을 기념하는 공간과 상징물들이 여럿 있다. 5·18 사적지 제1호인 정문 옆에는 민주광장이 위치해 있으며, 사범대 벽화길에는 전남대 벽그림 추진위원회의 '광주민주항쟁도'가 그려져 있다. 또, 민주열사 박물관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박물관 언덕'을 비롯해 '김남주 뿔', '오월열사 기억정원', '박승희 정원' 등도 만날 수 있다.

전남대는 올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이곳들을 정비하고, 이들을 하나로 잇는 '민주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민주길'은 전남대 학내 11개의 5·18 기념공간과 상징물들을 각각 '정의의 길', '인권의 길', '평화의 길'로 연결한 5km의 산책로로 시민과 학생들의 문화·휴게·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길'에 음악을 입혀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외쳤던 시대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뮤직플랫폼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무송)은 전남대학교 LINC+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 뮤직플랫폼 '민주길, 오월을 듣다'를 제작했다.

뮤직플랫폼 제작 총괄은 문화전문대학원 김인설 교수가 맡았으며, 전남대 문화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송선미씨가 기획과 연출을 담당했다.

'민주길, 오월을 듣다' 첫 번째 오프라인 공연은 12일 오후 2~6시 전남대 내 5·18 기념공간 4곳에서 열린다. 공연은 ▲민주항쟁을 그리고, 칠하다 벽화마당(전남대 사범대 벽화길),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진양지 5·18 광장(1생 잔디밭) ▲민주화의 새벽 기관차 박물관 언덕(전남대 정문) ▲민주화의 문을 열고, 인권·평화의 길을 내다 5·18 소공원(전남대 정문)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서는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배우 등으로 활동중인 클로드 볼링의 '벨로체(Veloce)'와 뮤지컬 '위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콘텐츠 제작

오늘 교내 5·18 기념공간서 창작곡 공연

유튜브 등서 관람...매주 월요일 업로드

드' OST 'One short day'를 들려준다.

특히 이날 '민주길'과 관련한 창·제작 노래 3곡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전남대 출신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이근은 대표한지성이 작곡한 '월야지곡', 'The way'와 음향 기업 컬쳐스튜디오 대표 박순근이 김남주 시에 곡을 붙인 '사랑'이 그것이다.

'월야지곡'은 달이 떠 있는 밤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달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The way'는 '정의의 길', '인권의 길', '평화의 길'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졌는데, 특히 '평화의 길'은 클라리넷과 첼로의 2중주로 시작, 현악4중주와 클라리넷의 앙상블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대가간 갈등을 지양하고 평화를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사랑'은 박 대표가 '김남주 뿔'에 있는 김남주 시인의 기념비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반유신투쟁을 위해 펜을 든 김남주 시인을 기리며, 추운 겨울 뒤에 오는 봄을 그린다.

공연에는 이근은 멤버들과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연주자로 함께 오른다.

뮤직플랫폼 '민주길, 오월을 듣다'는 오는 30일 '유튜브 문전원TV'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민주길' 관련 창·제작 곡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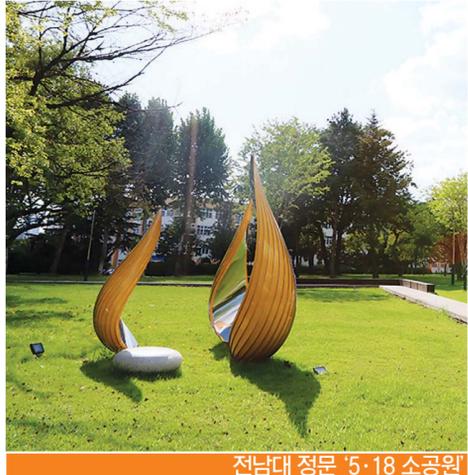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민주항쟁을 그리고, 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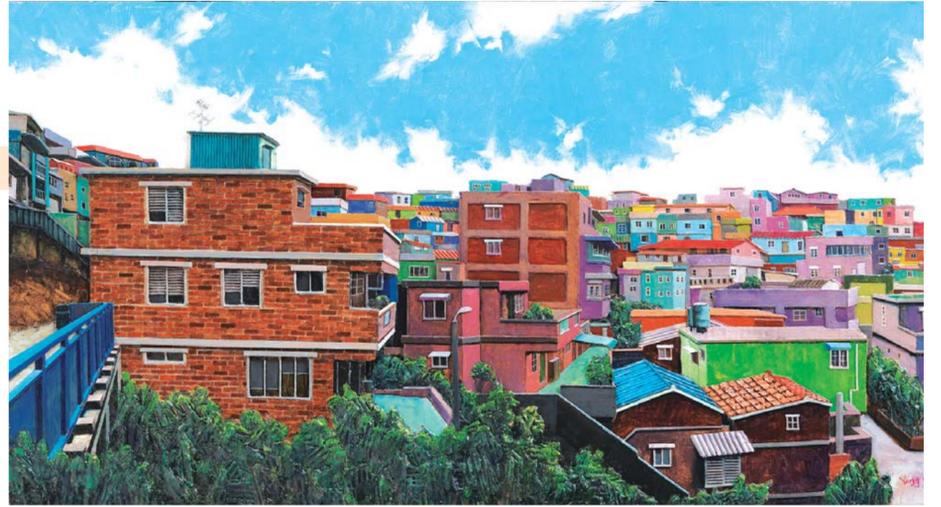
전남대 사범대 '벽화마당'

민주화의 문을 열고, 인권 평화의 길을 내다



전남대 정문 '5·18 소공원'

양나희 작가 '광주미술상' 수상 개인전



'삶, 풍경'

12~29일 동구 은암미술관

18일 '작가와 대화' 시간도

지난 1995년 첫 수상자를 낸 '광주미술상'은 지역 젊은 작가들이 가장 뿌듯해하는 상이다. 선배 작가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상이라는 사실에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 지금까지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1개 단체와 28명의 작가들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는 올해부터 창작지원금만을 주는 데서 벗어나 수상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규모있는 개인전을 열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올해 제26회 광주미술상 수상자인 서양화가 양나희 작가 개인전이 12일부터 29일까지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버려진 골판지를 활용해 작업하는 양 작가는 청년 작가 중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뚜렷한 작가다. 이번 개인전 주제는 'Useless...but Beautiful'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회성 포장재로 쓰고 버려지는 골판지 등은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환원된다.

전시에는 신작 13점을 비롯해 초창기 작품과 화풍의 전환점이 된 작품 등 모두 30여점이 나온다. 작품들은 도시 도시민들의 일상 삶의 공간과 서정을 회화와 설치로 실감나게 담아내고 있다.

양 작가는 골판지의 종이재질이 갖는 부드러운 고풍과 고른 골들이 만들어내는 두께와 음영을 이용해 입체감 나는 부조 효과를 쌓고 그 위에 사실적으로 풍경을 그려낸다. 양 작가의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 대한 한 없는 애정과 연민을 담아 그가 그려낸 정겨운 골목풍경, 별무리 지는 달동네 모습은 한 편의 시처럼도 읽힌다.

전시에서는 실제풍경과 액자 속에 담은 같은 장소의 풍경을 한 화면에 결합시킨 사진 작업 '쉽게 그린 그림' 연작도 만날 수 있다. 18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 대화'가 열린다.

양 작가는 "비슷한 소재로 작업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들이 깊었고, 그 고민들은 자극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신작들은 그 고민의 바탕 아래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감정들을 묵묵히 그려려 했다"고 말했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북경 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상해 운아르떼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전남도미술대전과 남농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꽃담의 세계' 서병옥 작가 초대전

26일까지 국윤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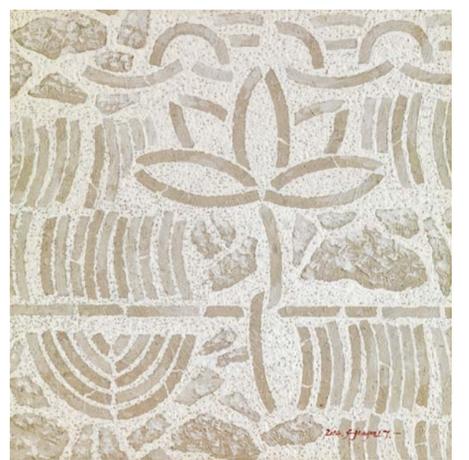
서양화가 서병옥 작가는 15년 가까이 전통적인 '꽃담'을 소재로 작업해왔다. 초기에는 옛 와당(瓦當)에서 발견한 다양한 조형미를 표현해온 작가는 작업이 계속될수록 주제와 재료적 실험 등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오는 26일까지 서병옥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10여년만에 '소우주로부터'를 주제로 개인전을 여는 서 작가는 꽃담의 한 부분을 화폭에 가득 채워나간다. 직접 꽃담을 보는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백경석 가루를 섞어 만든 바닥재를 바르고 그 위에 담장을 올리듯 붓끝으로 안료를 수없이 찍어가며 담벽의 가실까실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연꽃, 불로초, 별, 목어 같은 모양으로 기와와 와당(瓦當), 망와(望瓦)들이 꽃담 장식을 이루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다.

작가는 꽃담이 지닌 우아함과 조화로운, 소박하거나 화려하기도 한 장식미,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담장의 존재감 등 꽃담 자체가 지닌 특별한 매력들을 따스하고 정감 있는 파스텔톤 색채의 고풍스러움과 절제된 표현으로 완성해낸다.

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각종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



'꽃담 III'

며 현재 새벽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유튜브브, SNS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공연예술단체 순수 '가을애가' 공연...13일 오웬기념각

공연예술전문단체 순수가 오는 13일 오후 7시 오웬기념각(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시즌 세 번째 공연을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올해 건립 106주년을 맞은 오웬기념각에 얽힌 역사 등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으로, 그랜드오 페리단과 함께 '가을애가'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서는 '롤 니드라이', '장밋빛 인생', '시네마 천국',

'시크릿 가든', '나는 이 마을의 만능 일꾼', '보석의 노래',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을 들려준다. 또 '보라리제', '기도',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등도 선사한다.

무대에는 헬리스트 박효은, 보컬 송주혜, 색소피니스트 박수용, 소프라노 박성경, 바리톤 손승범, 테너 송태왕 등이 오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내가 죽던 날
3관	도굴,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4관	내가 죽던 날
5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6관	도굴
9관	킹덤 오브 해본: 디렉터스 컷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7관	씨네커플 애비규환 담보
8관	킹덤 오브 해본: 디렉터스 컷, 애비규환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래어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30.(월) ~ 12.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